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 ~ 3] 다음은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마피아 게임: 참가자들은 서로 아는 ‘마피아’와 마피아의 수만을 아는 ‘시민’ 중 하나를 역할로 받는다. 게임의 ‘밤’ 턴에 마피아들은 시민 하나를 골라 살해한다. ‘낮’ 턴에는 모든 참가자가 마피아가 누구인지에 관해 토론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투표로 처형한다. 이것을 마피어나 시민 중 한쪽이 모두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남은 쪽이 이긴다. 한 번의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는 보통 5명 이하가 적당하며, 반드시 시민보다 적어야 한다.

* 모모, 지효가 마피아이고, 채영이 의사, 쯔위가 경찰, 나연, 사나, 미나, 다현이 시민, 정연이 사회자이다.

** 현재 쯔위가 마피아로 지목된 상태이다.

쯔위: 와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사나: 나 쯔위 아닌 것 같아. 쯔위 아니야.

정연: 쯔위를 죽이...

나연: 쯔위가 많아 근데

정연: 쯔위를 죽이겠습니까?

사나: 쯔위 죽이면 안 돼. 쯔위 죽이면 안 돼!

정연: 하나, 둘, 셋.

(투표에 의해 쯔위를 처형하자는 사안이 부결된다.)

다현: 쯔위 살리는 게 맞아.

나연: 지금 쯔위 살리면 뭐가 마피아 같아.

지효: 다 마피아인 거 아냐? 알고 보니까.

나연: 왜냐하면 시민이면은 첫판에 그냥 아무나 죽이거든. 근데 이게 망설이는 애는...

지효: (나연 말을 끊으며) 그게 아니라 말을 했으니까 자기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나연: (쯔위를 가리키며) 애는 자기 죽일 것 같으니까 중요한 역할이라고 바로 말 돌렸어.

지효: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러지 않아?

사나: 아니야, 애는 거짓말 못해. 중요한 역할 맡았으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죽으면은 그 역할 그거 못하니까.

나연: 쯔위가 경찰 일을 잘 몰라.

지효: 왜 자꾸 몰아? 그렇게 치면 밀리터리 언니도 바지 갈지 모모랑.

나연: 이걸 그냥 추리하는 거잖아.

지효: 그러니까...

사나: 쯔위야 너 역할 잘 해야되는 거 알지?

나연: 모모야 한 마디라도 좀 해줘.

모모: 아 나 진짜 계속 억울해! 아 나 진짜 제발...

사나: 근데 모모 바지 보면은 되게 마피아 같아.

모모: 아 나 진짜 느낌 없어. 느낌은... 다현?

사나: 다현아 너 뭐야?

다현: 나 뭐냐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나: 아무것도 아니야?

다현: 어.

사나: 시민이야?

다현: 어.

사나: 진짜로? 마피아 아니야?

다현: 어.

나연: 다현이 아닌 것 같아. 다현이 하면 티 나서 내가 알지. (나연이 웃는다)

채영: 아 나 왜 자꾸 모모 언니 같지? 미안하지만 모모 언니 같아.

나연: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미나랑 쯔위 이렇게 했더니 정연이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 했는데...

미나: 나는 나는 진짜 아니야.

다현: 미나 언니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미나 언니는 진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나연 언니가 마피아 같아.

모모: 난 채영이.

채영: 나 아니야.

정연: 30초 시간 줄게. 너무 시간 끌어 앞에.

나연: 그래, 이런 첫판은 아무나 죽여야 돼.

정연: 자, 마피아를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연이 지목된다.)

정연: 나연 언니?

나연: 나?

정연: 나연 언니를 죽이겠습니까?

나연: 와... 알지요 여러분, 나 시민인 거?

정연: 하나, 둘, 셋.

나연: 진짜 어이없어...

(나연을 처형하자는 사안이 통과된다.)

정연: 어 많아 많아. 가능. 끝났습니다. 나연 죽었습니다.

나연: 재미없는 판이구먼, 진짜. 잘해봐라 야.

1.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사나는 쯔위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B]: 발언권을 얻지 않고 나연의 말을 중단한 지효의 행동은 올바른 의사소통 태도에 어긋난다.
- ③ [C]: 지효, 사나, 나연은 한 토의 참여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발언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 ④ [D]: 다현은 계속되는 질문에 같은 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⑤ [E]: 처형된 나연은 남아있는 시민들에게 응원의 말을 남기며 퇴장하고 있다.

2. 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이 촉박함을 알리며 토의 참여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②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요약하며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토의의 진행을 이끌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위 토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보통 마피아 게임의 참가자들이 마피아와 시민으로 나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임의로 '경찰' 또는 '의사'라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경찰과 의사는 '밤'에 마피아와 다른 시간에 활동한다. 마피아의 차례가 끝난 후에는 경찰의 차례가 되는데, 경찰은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마피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의사의 차례인데, 의사는 한 사람을 골라서 (죽은 사람 제외) 살릴 수 있다. 마피아가 선택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죽지 않으며, 그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의사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의사의 차례가 끝나면 '낮'이 된다.

- ① 쯔위가 자기 차례에 모모를 지목하면 마피아 중 한 명의 정체를 알 수 있겠군.
- ② 지효는 쯔위나 채영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겠군.
- ③ 마피아가 나연을 처형하자는 여론을 조성하여 생존을 꾀하고 있군.
- ④ 채영은 쯔위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겠군.
- ⑤ 마지막에 모모, 사나, 지효, 쯔위가 남는다면 마피아의 승리가 확정되었군.

[4~5]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 가수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대표 박진영의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JYP의 가수를 발표할 때 이 사람이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뭘까? (세 가지 덕목이 적힌 칠판을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진실이야.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해볼까? 욕! 이런 말들 요즘 진짜 자주 하지 어린이들 특히. 너희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나는 쓸까 안 쓸까? 솔직히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청중의 대답을 확인하고) 조금 쓸 것 같아? (청중의 대답을 확인하고) 사석에서 술을 먹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썼었어. 근데 2010년?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 난 이런 말을 단 한 마디도 안 써. 이 말을 정리하면, 조심할 게 없는 사

람이 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항상 그래, 야 너 연예인 하려면 말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아니야, JYP에서는 조심하면 안 돼 걸려 언젠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지? (청중이 “네”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그동안 안 썼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그러나 그동안 썼더라도 오늘부터 꼭 안 썼으면 좋겠어.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성실이야. 너희는 지금 하려는 게 퍼포먼스까지 함께 하는 가수잖아, 그렇지? 그럼 꼭 매일 해야 할 것만 보자. 체조해야 되지, 스트레칭 매일 해야 해. 운동해야 되지, 춤 연습해야 되지, 노래연습 해야 되지.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것을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되는 사람 있냐? 어 있어, 잘돼. 잘되는 사람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나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만날 취해가지고 클럽 다니고 담배 피고 이러는데 노래는 또 너무 잘해. 근데 문제가 뭘지 알아?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 안 나. 길게 보면 차이 나.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세가.

자 세 번째, 이 ㉢겸손은 말이야, 마음속이 겸손해야 해. 너희 차 운전해 주시는 분, 너희 옷 들어주는 언니, 이런 분한테 행동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고마워해야 해 진짜. 왜? 너희가 부족하다는 걸 너희가 알수록 그분들에게 고맙잖아. 겸손은 너희에게 보험 같은 거야. 겸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살다보면 위기가 와 안와? (청중이 “오지요”라고 대답한다) 이 위기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그 위기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근데 성공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다 보니까 JYP에서 가수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 허허허.

4. 발표에 반영된 발표자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의 핵심 내용이 담긴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 ② 청중의 흥미를 끌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틈틈이 질문을 하였다.
- ③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④ 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 ⑤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긴장된 분위기를완시키고 있다.

5. ㉠, ㉡, ㉢에 대한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점]

— < 보 기 > —

미나와 뱀뱀이 최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유출되었는데, 사진 속에서 미나와 뱀뱀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합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실제 사진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13일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격 없는 친구 사이끼리 찍은 사진이다.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JYP의 강경한 대응은 지난 KBS 연예가중계에서 JYP 대표인 가수 박진영이 출연해서 밝힌 바 있다. 박진영은 "원래 5년간 연애 금지였다. 하지만 아무도 지키질 않아 3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MBC '황금 어장-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던 트와이스 멤버 사나와 정연 또한 "트와이스에도 연애 금지령이 있다. 3년 연애 금지다"고 소속사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알리기도 했다.

- ① JYP 엔터테인먼트가 사진이 합성이라고 해명하였다는 점에서 ㉠의 태도에 어긋나는군.
- ②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의 태도가 결여되어있군.
- ③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애 금지령은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군.
- ④ 노래 연습할 시간에 토크쇼에 출연하는 사나와 정연은 ㉡의 태도가 결여되어있군.
- ⑤ 박진영이 연애 금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준 행동은 ㉢의 태도에서 비롯되었것군.

6. 다음 그림에 적혀 있는 트와이스 멤버의 이름 중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의 개수는? (쓰우는 특수한 외국어 표기이므로 제외)



SANA JIHYO CHAEYOUNG MOMO NAYEON JEONGYEON
DAHYUN TZUYU MINA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7. <보기1>, <보기2>의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1 > —

사나: 그리고 여름에 다들 바다나 계곡에 많이 가잖아요.
계곡이 뭔지 알아요?
쓰위: 계.. 계곡?
사나: 나도 몰라서 다현이한테 물어봤는데, 계곡이 돌맹이 엄청 많은 거.
쓰위: 아 진짜? 돌맹이?
사나: ㉠돌맹이는 그거지. 그거, 정연이가 좋아하는 것. ㅋㅋ 그거 산속에 흐르는 물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엄청 있고, 돌이 엄청 많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리예요. 다리면 한 여기쯤까지 물이 오는.. 뭔지 알아요? 좁은...
쓰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나: 다현이가 설명해준 대로 설명할게요. ㉡“계곡이 뭐냐면 언니, 돌 있잖아. 돌이 엄청 많은 물 있는 데.”,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느낌으로 알았죠. 아 그거겠지 하면서 했는데, 느낌으로 알았죠?
쓰위: 네,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사나: 그렇죠, 그럼 된 거예요.

— < 보 기2 > —

㉢계곡01(溪谷)[계-/계-] [㉢계곡만[계공-/계공-]]
「㉢」
물이 흐르는 골짜기.

- ① ㉠을 통해 음운이 말의 뜻을 변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에서 사나는 직접 인용을 통해 쓰위에게 계곡의 뜻을 설명해주려 하고 있군.
- ③ ㉢이 '계곡01'로 등재되어있는 것을 보니 계곡은 다의어겠군.
- ④ ㉢을 '계공만', '계공만', 둘 중 어느 것으로 발음해도 상관없으나 '계곡만'으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군.
- 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명사'겠군.

[8~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Ring ring 네 전화에
하루를 나 시작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땀니

It's you 너무 ㉠달콤해
어쩔 그리도 완벽해
네 ㉡목소리가 닿을 때
말해줘 그래 그렇게 yeah

Hey boy 내 컷가에
다가와 ㉢속삭여 줄래
어젯밤 꿈처럼
내게 ㉣다가와 줘

1 to 10 난 너로 가득해
하루 종일 널 생각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 밖에 모르던 내가
1 to 10 날 설레게 해
숨길 수 없게 더 ㉤빠져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에게 말하고 싶어

나 그냥 네가 좋아
이유를 모르겠어
tell me why baby
그래서인지 더 더
네가 궁금했어 oh no

단디 마음 잡아야 해
넌 모른 척 그저 바라봐줘
그렇게 날 보면
난 헤어 나올 수 없어

- 트와이스, 「1 TO 10」 -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접미사가 단어로 자립해서 쓸 수 없는 어근에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② ㉡: 종속 합성어이자 통사적 합성어이다.
- ㉢: 어근에 접미사가 붙은 파생동사이다.
- ④ ㉣: 합성동사와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 용언과 용언이 연결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음운 변동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점]

< 보 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시작하네[시작카네]'는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군.
- ② '어땀니[어딘니]'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③ '닿을[다을]'은 축약 및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④ '컷가[컹가]'는 교체 및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군.
- ⑤ '없어[업쎄]'는 탈락 및 첨가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10~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드디어 컴백, 'TWICE' 4월 25일 미니 2집 [PAGE TWO] 발매. 'TWICE'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TWICE'만의 건강하고 발랄한 매력을 한층 더 쌓아 올린 '출구 없는 회전문' 걸그룹의 당찬 발걸음.

음원 역주행, 신인상, 7만장에 육박하는 앨범 판매량, 걸그룹 데뷔곡 기준 역대 최고 Youtube 조회수까지. 작년 하반기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TWICE'가 드디어 4월 25일 미니 2집 [PAGE TWO]를 발매하며, 이들의 두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인으로서의 유례없는 성적을 일궈냈던 만큼 이번 미니 2집에 대한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설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최고의 앨범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거듭해왔다.

2집 [PAGE TWO]는 'TWICE'만의 고유한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도 더 많은 색깔을 담기 위한 시도를 놓치지 않았다. 전작 "OOH-AHH하게"로 자신 있게 선보였던 'TWICE'만의 유니크 스타일 'Color Pop'을 기반으로 더 세련된 구성과 다채로운 사운드를 담고 있는 타이틀 곡 "CHEER UP"을 시작으로, 멤버 '채영'의 랩 메이킹과 함께 18년 만에 리메이크되는 "소중한 사랑", 'TWICE'가 가진 활기찬 개성과 똑같은 다이나믹 사운드의 "Touchdown", 청량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잡아낸 "특하면 톡" 힙합, 펑키, 그루브를 하나로 모아, 말 그대로 '신나기 이를 데 없는' '어서 우리 세계로 들어오라'는 자신감 넘치는 가사의 "WooHoo", 'TWICE'만의 독특한 정서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Headphone 썬"까지. 국내외 정상급 작곡가/작사가 및 엔지니어 팀과 함께 한 이번 미니 2집 [PAGE TWO]는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두 번 감동을 주겠다는 'TWICE'의 각오를 넘어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음악적 스

팩트럼을 자랑한다. 여기에 하나 더, 'SIXTEEN' 때 많은 화제를 낳았던 "I'm gonna be a star"를 완곡으로 CD에만 수록,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쁜 애 옆 예쁜 애 옆 예쁜 애" 라는 수식어가 회자될 정도로 비주얼 매력이 앞서는 'TWICE'이지만, 팬들 앞에 'Group TWICE'로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음악적 성장 또한 엿볼 수 있는 이번 앨범은 'TWICE'의 한층 더 성장한 '무궁무진한' 매력을 보여주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다.

나아가 세번째, 네번째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궁금하게 만들. 새로운 시작점으로서의 즐거움과 의미로 가득 차있다. 이번 앨범을 통해 무엇보다도 팬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순수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TWICE'. 평균 연령 18세지만 이 당차기 이를 데 없는 9명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을 이뤄 나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만 같다. 그래서 'TWICE'를 마주할 때 설레는 마음을 더 감출 수가 없는게 아닐까. 이제 그 설레고 즐겁기 이를 데 없는 마치 놀이동산 같고, 마법 같은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의 눈 앞에 한번, 그리고 우리의 귀에 한번.

"Cheer Up"

힙합, 트로피컬하우스, 드럼&베이스 장르를 믹스한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TWICE'만이 보여줄 수 있는 컬러 팝(Color Pop) 댄스 곡으로 "OOH-AHH하게"보다 더 세련되고 신나고 청량감 넘치는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다. 특히 멤버 개인파트마다 느껴지는 창법의 변화와 멜로디는 기존 아이돌 음악에서 들을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I'm gonna be a star (CD Only)"

더 큰 스타가 되겠다는 당돌한 포부를 담았다, 'SIXTEEN' 방송 시절 때부터 지금의 'TWICE'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아우르기 위해 'SIXTEEN', 'TWICE'를 언급하는 등의 가사적 유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

매일 울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배려 해줘
배터리 낭비하긴 싫어
④자꾸만 봐 자꾸자꾸만 와
전화가 평 터질 것만 같아

몰라 몰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쿵 심장이 떨어진대 왜
개 말은 나 너무 예쁘대
사랑하는 건 아니고

⑥아 아까는 못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shy shy shy
만나긴 좀 그렇구 미안해
좀 있다 연락할게 later

조르지마 얼마 가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맘 갇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맘을 주면 안돼
그래야 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just get it together
and then baby CHEER UP

(I need you)

안절부절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 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어어어 너무 심했나 boy

이러다가 지칠까 봐 걱정되긴 하고

어어어 안 그러면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어 빠질 것만 같어

(중략)

- 트와이스, 「CHEER UP」 -

* shy shy shy : 샤샤샤.

(다)

I'm gonna be a star
I'm gonna be I'm-I'm gonna be
I'm gonna be a star
I'm gonna be I'm-I'm gonna be
I'm gonna be a star
I'm gonna be I'm-I'm gonna be
I'm gonna be a star
I'm gonna be I'm-I'm gonna be

④All the 오빠들 and 언니's (OK, OK)

새로운 스타, Do you want it? (OK, OK)

시선 고정해 다들 뻔히 (OK, OK)

지금부터 I make you love me, lo-lo-love me

I'm gonna be a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I'm gonna be I'm-I'm gonna be

I'm gonna be a star (star)

◎It's like 스카이라운지 다 모여

누가 스타다운지 I'll show ya (Hi)

별불일 없던 난데 이젠 별이 됐고

나를 비춰 전망대는 (Alright)

Spotlight 커지면
높게 뻗은 손의 물결위로
파도를 타듯 너무 고민없이
(We Goin'up, We Goin'up)

좀 어린 나이지만 아이처럼 안 굴어
아찔한 하이힐의 사이에도 안 끌려
병아리처럼 뻘-뻘약 대다가도
독수리처럼 위로 비약해 (Fly~)

중독적인 비트 위
가뿐히 올라와 Sweet 16's
함 빠져들면 No exit
(We go-go-go-in'up)

지금 귀에 들려오는 환호
무대 위를 밝혀주는 조명
간절히 늘 바라왔던 것들
앞에 서있어 Now We're goin'up
(Go-Go-Goin'up)
(Go-Go-Goin'up)
(Go-Go-Goin'up)
(Go-Go-Goin'up)
(중략)

- 트와이스, 「I'm gonna be a star」 -

10.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TWICE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은 4월 25일에 발매되었다.
- ② TWICE의 데뷔곡이 역대 모든 걸그룹 데뷔곡들 중에서 Youtube 조회수가 가장 많다.
- ③ "Touchdown"은 다이내믹 사운드를 통해 'TWICE'만의 독특한 정서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 ④ TWICE는 시각적 요소가 앞서는 그룹이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청각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 ⑤ (가)가 2016년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으로 TWICE의 평균연령은 19세이다.

11. (가)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나)에서는 각 연마다 운율과 시적 구조의 변화가 느껴지겠군.
- ② (나)의 '매일 울리는 벨벨벨', '연락할게 later' 등의 시구에 나타나는 유음의 반복을 통해 TWICE 고유의 청량감 넘치는 사운드가 드러나겠군.
- ③ (다)에서 특정 구절의 반복을 통해 더 큰 스타가 되겠다는 당돌한 포부가 드러나겠군.
- ④ (다)의 '스카이라운지'와 '스타다운지', '뻘약 대'와 '비약해' 등의 시구에서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나겠군.

- ⑤ (다)에서 화자가 '독수리'에 감정을 이입하여 'SIXTEEN' 방송 시절 때부터 지금의 'TWICE'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을 회상하고 있군.

12. (다)의 화자의 소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 ① 입신양명(立身揚名)
- ② 반포지효(反哺之孝)
- ③ 질서정연(秩序整然)
- ④ 오채영롱(五彩玲瓏)
- ⑤ 부화뇌동(附和雷同)

1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고, [B]에는 화자의 회의가 드러나 있다.
- ② [A]는 음성 상징어를, [B]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도치를 통해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대화체를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B]는 독백체를 통해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강조한다.
- ⑤ [A]는 하강 이미지를, [B]는 상승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14.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4점]

< 보 기 >

▶대세는 트와이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대세에 기대는 건 가장 똑똑한 방법일 수 있다. 트와이스의 'CHEER UP'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캠프의 선택을 동시에 받았다.

일단 노래 자체가 응원가의 형식을 띤다. 박자가 빠르고 신난다. 노래가 재미있고 중독성도 넘쳐 유세송으로 적합하다. 길가던 사람을 일단 멈춰 세울 수 있는 곡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지난해 가장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20~30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 문재인 후보나, 젊은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모두 적합하다.

하지만 아이돌 음악이라 모든 세대를 대변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나미의 '영원한 친구' 홍진영의 '엄지척' 등 트로트를 배치했다. 유승민 후보 역시 박현빈의 '샤방샤방' 해은이의 '파란나라'를 추가 선택했다.

- ① 킬러댄스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빠르고 신난다는 것이군.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으로 인해 강한 중독성이 나타난다는 것이군.
- ③ 팬들을 청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대변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군.
- ④ 전통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젊은 보수를 표방하기

- 에 적합하다는 것이군.
⑤ 제목인 'CHEER UP'에서 응원가라는 것을 알 수 있군.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abaab 구조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유사 구조의 반복으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④ ㉣: 돈호법을 사용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⑤ ㉤: 직유법을 통해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6 ~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열두시가 되면 단혀요

조금만 서둘러 줄래요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밤이 되면 내 맘속에

출입문이 ㉡열리죠

누군가 필요해 (Someone else)

㉢자꾸자꾸 서성이네

몰래 몰래 훑쳐보네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보나마나 또 playboy

떠보나마나 bad boy

확신이 필요해 Knock knock

(중략)

Hey hey 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있던 내 맘이 내 내 맘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버릴 테니까

Come knock on my door

내 맘이 열리게 두드려줘

㉠세계 쿵 쿵 다시 한번 쿵 쿵

Baby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쉽게 열리지는 않을 거야

say that you're mine

내일도 모레도 다시 와줘

준비하고 기다릴게 (knock knock)

Baby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걸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I'm freakin' freakin' out freakin' out out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 트와이스, 「KNOCK KNOCK」 -

(나)

(중략)

(M*: 트와이스, KNOCK KNOCK)

트와이스, 계단을 뛰어내려온다.

미나 (E*) Baby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나연 (E) 쉽게 열리지는 않을 거야

문이 열리고, 박진영이 등장한다. 멤버들,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다 같이 (E) Say that you're mine.

다시 문이 닫히며 O.L.*

다른 공간으로 전환되며 트와이스 멤버들이 단체로 춤을 춘다.

지효 내일도 모레도 다시 와 줘. 준비하고 기다릴게.
(Knock knock)

모모 (힙합댄스를 추며) Baby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다시 집으로 공간이 전환된다.

지효 (E)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걸. Knock on my door.

정연, 앞에 샷대질을 하는 시늉을 하고 나머지 멤버들과 함께 문 앞으로 걸어 나간다. 이어서 문이 열리고 무언가가 바닥에 놓여 있다. 멤버들의 시선이 그 물건으로 향하고 그 물건이 'THE TWICECOASTER'라는 제목의 책이라는 것이 보인다.

카메라, 책을 향해 C.U.*

(M.이 'KNOCK KNOCK'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다.)

트와이스 멤버들이 책의 페이지를 넘긴다. 책에는 차례대로 인어공주, 피노키오, 당근을 든 토끼, 겨울왕국의 엘사가 그려져 있다. 이때, 사나, 쯔위가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트와이스 멤버들은 신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간다. 이윽고 다시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고 텅텅 빈 그림이 나온다. 그 그림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트와이스 멤버들이 한 명씩 계단을 내려온다. 차례대로 미나, 지효는 발레 동작을 하고, 쯔위는 모자를 씌고, 다현은 서플댄스를 추고, 모모는 발차기를 하고, 사나는 앞구르기를 하고, 채영과 나연도 앞구르기를 시도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실패하고, 정연은 아무 동작 없이 무심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온 후에 문 밖으로 나간다. 이윽고 멤버들이 문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사나만 왼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밖에는 눈이 쌓여있고 트와이스 멤버들이 손을 흔들며 즐거워한다.

(M.이 다시 'KNOCK KNOCK'으로 바뀐다.)

미나 Hey hey 이 시간이 지나면
쯔위 굳어있던 내 맘이 내 내 맘이
다현 Ice cream처럼 녹아버릴 테니까.
(Come knock on my door)

모모, 눈을 던지고 멤버들끼리 눈싸움이 시작된다.

나연 (E) 내 맘이 열리게 두드려줘. 세계 쿵 쿵 다시 한번 쿵 쿵.

멤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미나 (E) Baby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다시 멤버들이 눈싸움을 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나연 (E) 쉽게 열리지는 않을 거야.
(Say that you're mine)

정연 (E) 내일도 모래도 다시 와줘. 준비하고 기다릴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문이 닫힌다. 정연, 낮이 나간 표정으로 닫히는 문을 바라본다. 갑자기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모모 (E) Baby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멤버들, 급히 집 쪽으로 뛰기 시작한다.

지효 (E)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걸. Knock on my door.

'THE TWICECOASTER' 책의 페이지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멤버들은 문 앞에 매달려 있다.

다 같이 (E)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I'm freakin' freakin' out freakin' out out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on my door

멤버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O.L. 어떤 저택 안에서 아이 둘이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무엇을 보며 놀라고 있다.

- 트와이스, 「KNOCK KNOCK 뮤직비디오」 -

- * M: 'Music'의 약자로서 배경음악, 효과음악을 말함.
- * E: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 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 C.U: 클로즈업, 어떤 대상이나 인물이 두드러지게 화면에 확대되는 기법.

16. (나)는 (가)의 뮤직비디오이다.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가사가 (나)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로 나타나고 있다.
- ② (가)가 (나)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고 있다.
- ③ (나)에서는 (가)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통해 감상자의 흥취를 돋우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장면에서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고 (가)의 가사가 반복되고 있다.
- ⑤ (가)의 '12시가 되면 달혀요'라는 구절을 (나)의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서 문이 닫히는 장면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

17.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특정 시간을 언급하며 상대의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
- ② ㉡: 대구법을 통해 대상의 행동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18. <보기1>, <보기2>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1 >

‘KNOCK KNOCK’ 곡 소개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너무 형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보려고요. 해볼게요, 여러분. 저희 이번 ‘TWICEcoaster : LANE 2’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 ‘KNOCK KNOCK’은요, 소녀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 다시 할게요. ‘KNOCK KNOCK’은요, 녹 녹, 노크한다는 영어의 의미로써 소녀의 마음을 노크해서 열어달라는 순수한 표현을 써서 만든 귀엽고 통통 튀는 곡이에요.

- 나연의 ‘KNOCK KNOCK’ 곡 소개

< 보 기 2 >

이번 스페셜 앨범 [TWICEcoaster : LANE 2]는 지난 3장의 앨범을 통해 만들어진 '트와이스 다음'에 또래들이 꿈꿔왔던 사랑스럽고 '귀여운 일탈'을 덧붙이고자 했다. 신나는 하우스비트와 멤버들의 예쁘고 밝은 에너지가 잘 어우러진 타이틀 곡 "KNOCK KNOCK" 부터, 펑키하고 더욱 Popping해진 스타일링과 비주얼, 부클릿 이미지에서 엿볼 수 있는 멤버들의 장난기 가득한 표정까지. 닫혀있는 소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귀여운 외침을 표현한 가사 또한 곡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다채롭기 이를 데 없는 익숙한 새로움을 통해 그룹 이름처럼 '귀로 한번, 눈으로 한번' 트와이스가 선물하는 두 번의 즐거움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 ① (가)와 (나)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상응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취하여 자연스러운 형식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제목이 트와이스의 앨범과 유사한 책이 소품으로 등장하여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다.
 ③ (나)는 동화 속 캐릭터들이 그려진 책을 통해 순수한 소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귀여운 일탈'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⑤ (나)의 멤버들이 눈싸움을 하는 장면에서 연기자들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19.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트와이스 멤버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대상이 아닌 박진영 PD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군.
 ② 미나를 선두로 트와이스 멤버들이 차레대로 내려오는 장면을 통해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드러나고 있군.
 ③ 사나만 혼자 왼쪽 방향으로 가는 장면은 사나의 소외감이 표현된 것이군.
 ④ 트와이스 멤버들끼리 눈싸움을 하는 것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군.
 ⑤ 트와이스 멤버들이 문을 두드리다가 사라지는 장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이상의 좌절이 나타나고 있군.

20.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개통되지요 ② 개발되지요 ③ 개방되지요
 ④ 개시되지요 ⑤ 개설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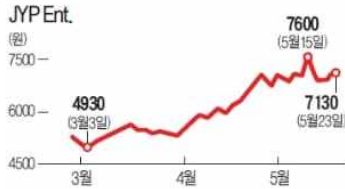
- [21 ~ 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JYP엔터테인먼트(JYP엔터) 주가가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의 인기몰이 덕분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사세가 커지자 이 회사는 2002년부터 쓰고 있는 서울 청담동 사옥을 떠나 올림픽공원에 새 사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은 거의 모두가 증권거래소를 거치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주식은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의 가치에 따라 값도 변화한다. 주주는 우선 회사가 해마다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액면 5,000원짜리 주식으로 배당이 매년 1,500원씩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시중 이자가 15 %라고 하면 주가는 액면의 두 배인 10,000원이 될 수 있다.

배당금이 줄어든 전망이거나 시중 이자율이 올라갈 ㉡전망이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배당은 원천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많아야 많이 줄 수 있고, 또 이익만 많다면 당장은 배당을 덜 주더라도 언젠가는 높은 배당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런 기업의 주가는 오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1주당 이익금에 비하여 몇 배 수준에 있느냐 하는 주가수익률이 중시된다. 위의 예에서 그 회사의 이익금이 1주당 2,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주가 10,000원은 주가수익률이 5배인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 가치는 기업의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익가치라고 한다. 주주는 또 회사가 해산될 때에는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를 내어 배당을 못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치는 남는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주가를 자산가치라고 한다. 또 같은 주식이라도 적은 금액을 잠시 투자해서 배당과 시세차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일반 투자자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대주주가 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필요한 여분의 주식을 사 모을 때에는, 그 주의 수익이나 자산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수가 흔히 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3일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90원(1.28%) 오른 7130원에 마감했다.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고 울 들어 44.77% 상승했다. 울 들어 기관투자자가 68억원, 외국인투자자는 41억 원어치 사들이며 이 회사 주식을 밀어 올렸다. 트와이스의 노래가 ‘메가히트’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림>

2015년 첫 무대에 오른 트와이스는 지난해 '티티(TT)'에 이어 올해 '낙(KNOCK KNOCK)'과 '시그널(SIGNAL)'로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다. 트와이스를 앞세운 JYP엔터는 올 1분기에 매출 219억원, 영업이익 38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9%, 442% 늘었다.

트와이스가 다음달 앨범을 발매하는 등 일본 ④데뷔를 앞둔 만큼 이 회사의 앞으로 실적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트와이스에는 일본인 멤버가 세 명이나 되는 만큼 일본에서 흥행할 요소가 많다"며 "다른 걸그룹인 소녀시대가 거둔 성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JYP엔터는 올해 안에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일대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거친 뒤 신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2002년부터 사옥으로 쓰고 있는 청담동 JYP센터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박진영 이사는 자신이 소유하던 JYP센터를 201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 팔았다. 이후 JYP엔터 임직원들은 JYP센터와 주변 건물 다섯 곳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JYP엔터 관계자는 "흠어진 ④인력과 조직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새 사옥을 매입하기로 했다"며 "신사옥 마련은 박 이사의 오랜 숙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남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싸고 올림픽대로와 가까운 올림픽공원 인근에 사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잠실 롯데타워, 한강공원 등과 연계해 한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JYP엔터는 사옥 매입 대금의 대부분을 내부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지니뮤직(옛 KT뮤직) 보유 주식 전량(78만6607주)을 장내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주당 6740원 안팎으로 총 53억원가량이다. 이 회사는 2012년 지니뮤직 전환사채(CB) 2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2014년 1월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매각으로 5년 만에 투자원금의 26배를 벌어들였다.

21. <보기>의 ㄱ~ㄴ 중 윗글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은? [4점]

- < 보 기 >
- ㄱ. 배당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의 주가는 상승한다.
 - ㄴ. 트와이스 'CHEER UP'의 흥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
 - ㄷ. JYP 엔터테인먼트의 2016년 1분기 매출은 100억원 미만이다.
 - ㄹ.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니뮤직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 윗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군.
- ② 5월 15일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수익률이 4배 수준에서 형성되었다면 1주당 이익금은 1900원이군.
- ③ 시중 이자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7130원에서 더 상승하겠군.
- ④ JYP 엔터테인먼트가 해산될 때 우선 주주들에게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고 빚을 갚겠군.
- ⑤ 박진영이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무조건 그 주의 수익이나 자산에 비추어 낮은 가격을 부르겠군.

23. ㉠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트와이스는 소녀시대와 달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쳐 데뷔하여 존재론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② 트와이스는 소녀시대와 달리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멤버가 4명이나 되어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 ③ 트와이스 'TT'는 소녀시대의 기록을 넘어서고 현재 유튜브 걸그룹 뮤직비디오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④ 트와이스의 일본 데뷔 앨범 판매량이 소녀시대의 일본 데뷔 앨범 판매량을 앞선다.
- ⑤ 트와이스는 소녀시대보다 음악방송 1위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짧다.

24. 문맥상 ㉠~㉥의 뜻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② ㉡: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 ③ ㉢: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 ④ ㉣: 일정한 활동 분야에 처음으로 등장함.
- ⑤ ㉤: 사람의 노동력.

[25 ~ 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올해 2월 스페셜 앨범 [KNOCK KNOCK]으로 팬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트와이스'가 드디어 '박진영 PD'의 곡으로 5월 메이퀸 등극을 예고하며 3개월만에 팬들 앞에 미니 4집 [SIGNAL]을 선보인다. "우아하게" - "CHEER UP" - "TT" - "KNOCK KNOCK" 까지 4연속 메가 히트와 더불어 K-POP 걸그룹 최다 유튜브 조회수, 1억뷰 돌파, 30만장에 육박하는 음반 판매고, 첫 콘서트 실시간 매진 등 '기록 제조기'로서의 명성에 모자람이 없는 성적들을 만들어 온 '트와이스'가 이번에는 또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지. 팬들은 물론, 이제는 전 아시아가 주목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아시아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JYP의 수장인 '박진영 PD'와의 작업은 이번 앨범의 가장 주목할만한 포인트다. '식스틴' 때부터 멤버들의 선발 과정을 함께한 만큼, 멤버들의 특색과 개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프로듀서로서, '트와이스'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지금과 다른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위해 굉장한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후문. 그래서 탄생한 이번 미니 4집의 타이틀 곡 "SIGNAL"은 '박진영' 특유의 쉽고 캐치한 사운드와 그루브함이 '트와이스'의 발랄하고 건강한 에너지와 최고의 케미를 선사한다. 강력한 808 베이스의 힙합 리듬에 경쾌한 전자 악기들의 댄스블한 리듬을 배치하여 그루브함과 경쾌함의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찌릿찌릿'한 마음을 양증맞기 이를 데 없는 포즈로 그려낸 포인트 안무는 지금까지 '트와이스'가 만들어온 '샤샤샤'-'너무해' 라인을 잇는 '트와이스'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게 팝과 트렌디 사운드의 믹스처를 시도한 "하루에 세 번", 'HA:TFELT'가 작사하고, 중독성 강한 훅이 인상적인 "ONLY 너", "JELLY JELLY"에 참여했던 '조울 작곡가'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HOLD ME TIGHT", '지효'와 '채영'이 작사가로 참여한 "EYE EYE EYES"는 '트와이스'만의 감성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앨범의 또 다른 포인트. '지효'와 '채영'의 상상으로, 처음 느껴보는 설레는 감정을 담백하고 귀엽게 풀어낸 가사는 '트와이스'답다'는 말이 가장 어울릴법하다. '박진영'이 작사하여 사랑에 빠진 소녀의 모습을 그린, "LIKE A FOOL"-"ONE IN A MILLION"을 잇는 발라드 넘버 "SOMEONE LIKE ME" 까지, 이번 앨범 또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퀄리티의 수록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상의 자리에 다다르면서도,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트와이스'라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들 또한 너무나 분주했던 시간들임에도, 항상 처음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노래하고 연습했다. 한국과 일본,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트와이스'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트와이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트와이스'를 사랑해주는 팬 분들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는다. 이 모든 곡들에 그러한 마음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들리는게 아닐지.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든, '트와이스'와는 '함께 있는'것일 테다.

1. SIGNAL

'박진영'이 처음으로 만든 '트와이스'의 타이틀 곡으로 강렬한 808 Bass 사운드의 힙합 느낌과 경쾌한 전자악기들의 댄스음악 느낌을 교대로 배열함으로써 '박진영' 특유의 그루브함과 '트와이스'만의 경쾌함을 모두 표현한 곡이다.

2. 하루에 세 번

'김원 작곡가'와 싱어송라이터 '디아'의 작품. 남자친구의 무심함 때문에 뽀로통해진 여자친구의 심리를 매우 현실감있게 묘사한 가사로 공감대를 극대화 시킨 작품. 레게톤과 몸바톤의 적절한 조합과 묵직한 808소스의 리듬이 어우러져 트렌디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곳곳에 적절히 들어가있는 특이한 소리들과 적절한 업템포의 리드미컬한 요소가 특징. '트와이스'의 위트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트랙.

(나)

(중략)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①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A]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②눈치도 코치도 전혀 없나 봐 [B]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

③언제부턴가 난 네가 좋아
지기 시작했어 바보야
왜 이렇게도 내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나를 친구로만 대할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C]

Signal 보내 signal 보내
찌릿 찌릿 찌릿 찌릿
난 너를 위해 난 너를 위해
왜 반응이 없니
만날 때 마다 마음을 담아
찌릿 찌릿 찌릿 찌릿 [D]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왜 알지 못하니

Trying to let you know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I must let you know [E]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널 보며 웃으면 알아채야지
오늘만 몇 번째 널 보며 웃는데
자꾸 말을 걸면 좀 느껴야지

계속 네 곁에 머물러있는데

(중략)

- 트와이스, 「SIGNAL」 -

(다)

뭐하길래 종일 연락이 없는지

바쁘다 길래 전화 하려다 참았어

통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깟 몇 글자 쓰는 게 손가락 아프니

㉔내 생각 나지도 않니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사귀어

놀이만 하면서 왜 바쁜척해

많은 거 안 바래 부탁이야

㉕첫 번째 이제 일어났다고

두 번째 어디 줌 나간다고

세 번째 잠들기 전에 good night

더도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하루에 세 번 딱 세 번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것도 못해

하루에 세 번 딱 세 번

연락 좀 해 바보야

더 더 더 생각이 자꾸 많아지고 (hoo)

내 상상력은 점 점 점

해피엔딩만 멀어지고 (so bad)

통화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깟 몇 글자 쓰는 게 손가락 아프니

내 생각 나지도 않니

나보다 게임이 더 재밌나 봐

나 없이 혼자가 더 편한가 봐

너에게 도대체 나는 뭐야

첫 번째 이제 일어났다고

두 번째 어디 줌 나간다고

세 번째 잠들기 전에 good night

더도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하루에 세 번 딱 세 번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것도 못해

하루에 세 번 딱 세 번

연락 좀 해 바보야

(중략)

- 트와이스, 「하루에 세 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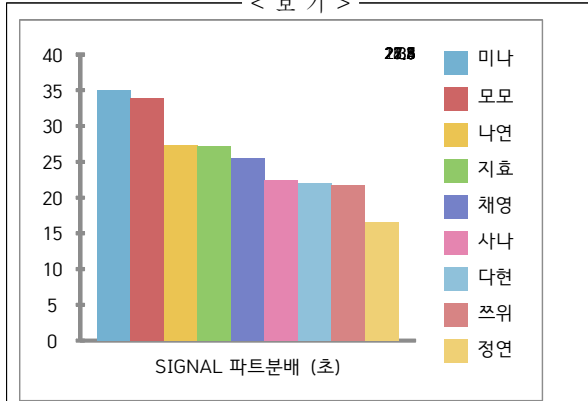
25.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트와이스는 2017년 2월 정규 1집 앨범 [KNOCK KNOCK]을 발매하였다.
- ② '박진영 PD'는 트와이스 멤버의 선발 과정에 관여하였다.
- ③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앨범에 트와이스 멤버가 작사한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 ④ 트와이스의 이전 앨범에 실린 발라드 곡으로 "LIKE A FOOL", "ONE IN A MILLION" 등이 있다.
- ⑤ 트와이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앨범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6.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3음보와 4음보의 율격의 교차로 특유의 그루브함과 경쾌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동일한 부사어의 반복으로 리드미컬한 요소를 확보하고 있다.
- ④ (다)의 '뭐하길래 종일 연락이 없는지', '내 생각 나지도 않니',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사귀어' 등의 구절에서 남자친구의 무심함 때문에 뽀로통해진 여자친구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⑤ (다)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부녀자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낸 가사로 공감대를 극대화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A]~[E]의 창자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트와이스는 'SIGNAL' 이전까지 적절한 파트의 분배를 통한 음악의 형식적, 미적 요소의 조화로 호평을 받았다. 여태껏 트와이스의 타이틀곡에서는 '고유나연'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상큼한 나연의 도입부, 지효의 시원시원한 가창력, 킬링파트를 담당하는 사나의 발랄함 등의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SIGNAL'의 파트분배는 혁신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나연의 도입부가 아닌 다현, 채영의 랩으로 곡이 시작되고, 메인보컬, 리드보컬과 가창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멤버들의 파트가 뒤바뀌었으며 모모, 미나의 파트 비중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처음에 대중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트와이스의 새로운 색깔을 보여줬다는 호평도 다수 있었다.

- ① [A]: 춤을 배운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외국인 멤버 두 명이 돌아가면서 부르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 ② [B]: 이 부분을 부른 멤버 중 한명의 언니가 탤런트이다.
- ③ [C]: 이 파트를 부른 멤버 2명은 과거 '닌텐도 wii' 게임 광고에 같이 출연한 경험이 있다.
- ④ [D]: 이 파트를 부른 멤버 둘 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형태로 생년월일을 표기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이 29이다.
- ⑤ [E]: 트와이스에서 가장 키가 작은 멤버 2명이 랩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환기하고 있다.
- ③ ㉢: 행간 결침을 이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입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바라는 행동을 열거하여 원망과 사랑이 혼재된 양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와 (다)의 화자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기>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보 기 >

울 엄마 아무 눈치 못챜듯
나도 아무렇지 않은듯 Cause I don't care
난 오히려 잘 됐어 끝나는 느낌은
머칠 모른척했어 싫었으니까
모른척했지만 다 알았어

네가 먼저 내 맘을 흔들고 날 떠난 건
나뻤으니까
나처럼 너도 좀 슬펐으면

- 트와이스 「Headphone 썬」 -

- ① (다)의 '친구'는 <보기>의 '엄마'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군.
- ② (다)의 '상상력'은 <보기>의 '끝나는 느낌'에 대응되었군.
- ③ <보기>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고 입과 재회하여 (다)에 나타난 '해피엔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군.
- ④ <보기>의 제목에 나타난 'Headphone'은 (다)의 '연락'을 무시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 ⑤ (다)에 나타난 화자의 원망이 <보기>에서 완전히 해소되었겠군.

30. (나)와 (다)의 화자가 모두 '예'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이별의 아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② 연인과의 관계에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까?
- ③ 연모하는 대상과의 소통의 결함이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 ④ 트와이스보다 블랙핑크가 낫습니까?
- ⑤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